

■ 불교TV 살리기 범불교 토론회

“범종단 지원책 절실”
“재정-경영 분리 검토”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범종단 및 불자들의 지원과 전문 경영인 영입 등이 제시됐다.

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불교TV살리기 범불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TV 회생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는 선우' 박광서 공등대표의 진행으로 여수석천사 주진옥스님등 6명의 패널이 열린 토론회를 통해 불교TV의 중요성과 위상을 재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놓인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한 해결책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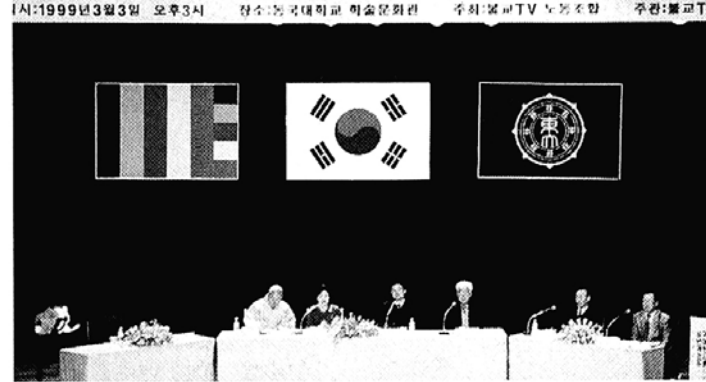
■ 범종단지원 검토 조성
불교기자협회 하준성회장은 "불교TV 설립 당시 범종단적 협력체제로 출발하지 못해 불교도 전체의 방송이라는 인식 부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불교TV 주식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통도사 주식을 분할해 특정 문종의 방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등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종단적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면서

"불교TV는 2천만 불자들의 발원과 영원의 결정체"라며 "다종교 상황에서 불교TV가 없어진다면 불교의 위상은 나락에 떨어질 것이다"고 전 불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호소했다. 신동우 불교TV노조위원장장은 "불교TV는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지만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불자들의 방송"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 경영인제 도입
여수 석천사 주진옥스님은 "교계의 매스미디어 이용 자세와 인식의 저조가 전문 경영인 부재라는 상황에 부딪혀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며 "불교TV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 한 뒤 종단과 스님들은 재정적인 면만을 뒷받침하고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불교TV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종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 시비와 경영 부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경영진의 한사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영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범종단의 적극적인 유무형 지원과 함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체 수입증대 방안
이영숙 위원장은 또 "경영난을 극복하

불교TV 살리기 범불교 토론회



○3일 열린 '불교TV 살리기 범불교토론회'에서는 불교TV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판로 확장, 불교 전문 이벤트 사업 등 수입증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신동우위원장도 "과거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수익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동시에 창출 시킨 전력이 있음"을 들어 불교TV의 수입 증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불교TV가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투자와 영업 마인드구조라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숙제들이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공역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방청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영숙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과 채널티어링제 실시로 불교TV의 시청자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위성방송 등 미래 방송 환경에 대비한 기본적인 제작 기술 체계를 갖춘 만큼 수익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우 위원장은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국내 방송을 위해 제작된 기존 프로그램의 영역자막, 영어 더빙의 추가비용으로 맞먹배 증가하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지털TV 시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은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불교TV는 이날 논의된 의견들을 종합해 경영 정상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주원 기자(jikim@buddhopia.com)

“신도등록 묘안찾자”

조계종 “계속추진”...실적 고과제등 마련

페이지까지 나오고 있는 조계종 신도등록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3일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의 쟁점은 신도등록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원장 정연스님과 포교원 부·국장, 과장, 1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들은 신도등록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말사의 신도등록 숫자에 따른 분담금 책정 등이 신도등록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라며, 이의 시정을 포교원에 요청했다. 또 국립공원 무료입장을 빌미로 신도등록을 권유하고서 막상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신도등록에 따른 분담금 책정과 관련해 이의 시정을 당부하는 공문을 교구본사에 보냈다고 밝히고, "신도등록 우수 사찰 포상, 미비한 사찰의 정정감사 강화, 인사고과 반영을 실현하겠다"며 이 사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신도등록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모두는 신도들의 조직화

정기적 실행 확산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신도등록 사업의 계속 추진에 동의했다. 또 15만명에 그친 신도등록 현황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도등록 사업은 95년 10월 시작, 3월 현재 14만8천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 포교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사찰 및 대도시 거점 실행체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 △교계언론매체와 사찰 발행 매체를 통한 신도등록 홍보 강화 △관탈로 사찰 무료입장 추진과 함께 불교용품판매와 연계한 신도등록 사업의 본사 이관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정성원 기자

무인년 동인거가 2일 전국선원에서 일제히 해제됐다. 방장·조실스님 해제법어 전문은 부디피아 인터넷 속보란에서 볼 수 있다. (www.buddhopia.com)

2월 27일은 혜초스님의 날이었다. 낮에는 학술세미나가, 밤에는 음악회가 열렸다. 세미나장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는 학자와 불자들이 가득했다.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는 1천5백 객석이 모자랐다. 서서 또는 밖에서 모니터로 관람하는 가 하면 되돌아간 불자들도 있었다.

혜초스님 음악회 무대는 오카리나 연주로 시작했다.

1시간동안 질서없이 때로는 장중하게 때로는 애달프게 구도의 길을 내달린 창작교성곡 '혜초'는 객석을 사로잡았다.

2천여 청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이는 가사에

반했고, 어떤 이는 곡에 반했고, 어떤 이는 곡·가사·관현악기와 한복의 아름다움 조화 등 모두에 반했다. 혜초스님의 생애가 드라마처럼 펼쳐진 가사에는 구법의 발걸음과 정신, 敎育에 살아 숨쉬는 禪, 서러움과 인도의 불심과 풍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한 우주의 나그네임을 알려주면서 혜초스님의 정신이 새천년으로 울려 퍼지길 발원하고 있다. 서양음악을 전공했으면서도 우리가 락을 사랑하는 작곡가는 이러한 가사

를 국악 교성곡으로 잘 살려냈다. 질중처럼 내달리는 구법의 열정, 달박은 밤 뜬구름과 거리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의 향수를 우리의 소리로 묘사했다.

3백30명이 출연한 대합창은 국악의 하모니였다. 가야금, 대금, 북, 팀 등 전통의 소리에 서양음악적 요소도 얼핏 얼핏 보였다. 그것은 국악이 젊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였다.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는 축하메시지를 통해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혜초스님의 창조적 탐구 정신과 진취적 기상은 우리민족의 세계화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그 정신과 업적이 선양되길 축원했다.

불교계와 문화관광부는 혜초스님의 정신을 되살리는 성대한 대중음악을 울렸다. 아쉬움이 있다면 불교계 밖의 관심부족이다. 혜초스님 음악회와 세미나는 불교 행사로 국한시킬 행사가 아니었다. 1월의 문화인물 이종실씨는 3월까지만 보되하는 것을 보면서 혜초 음악회도 문화·녹음방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정성원 기자(sjwng@buddhopia.com)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영광의 열매

“본분사 충실하면 밝은 미래”
능인선원장 지광스님



“조계종사태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고 참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분사에 충실하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습니다.”

조계종 제10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된 지광스님(능인선원장)은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며 불제자로서 욕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86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상가에서 불법을 퍼기 시작한 능인선원은 지금까지 능인불교대학을 통해 6만7천여명을 배출해냈다. “마음 속 깊숙히 들어가면 하나인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로 이같은 놀라운 성과의 비결을 설명했다. 지광스님은 현재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포교·복지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후 “불교계와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sjwng@buddhopia.com)

“새싹포교 불교미래 청사진”
정광중 경철교장



“불교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포교사 활용이 시급합니다.”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결정된 조계종립 광주정광중학교 경철 교장(62세)은 “미래불교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새싹포교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반들과 더욱 열심히 불교공부를 해나가겠다”는 말로 소감을 밝혔다.

7년간 광주불교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며 4백56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경철 교장은 “인재배출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며 “각 사찰에서 포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철 교장은 69년 광주정광교 교법사로 부임하여 전교교법사단 초대부회장과 정광중 교장,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광주불교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98년 9월 광주정광중 교장에 취임하여 현재 광주불교대학 명예학장, 조계종포교사단 광주전남부지부장,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광주불교문화원 상임법사로 활동중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opia.com)

“계율해이가 종단불신” 46.7%

승가대 ‘종단개혁의 평가...’ 5백여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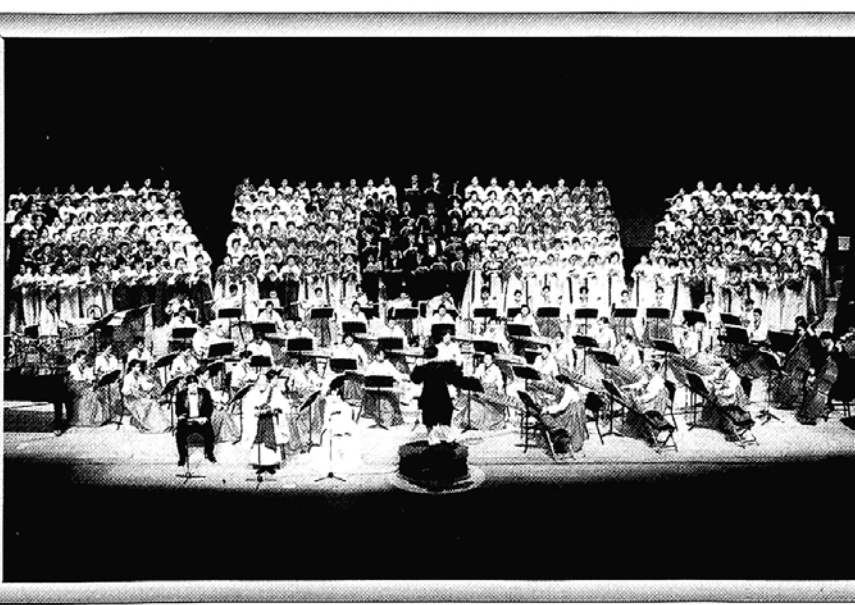
조계종의 젊은 스님(학인)과 신도들은 종단이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계율의 해이와 승가의 자질과 능력 리더십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 사찰의 재정운영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승가대학이 최근 발간한 <승가제16호에 게재된 ‘종단개혁의 평가와 불교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식조사’의 분석 자료에서 나타났다. 중앙승가대와 전국 강원학인 서울 대규모 사찰의 신도, 언론계 종사자 등 5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가을에 실시한 이 설문은 94년 개혁 이후 4년간의 불교계 변화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46.7%는 계율의 해이가 종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라 지적했으며 자질과 리더십의 부족이 원인이라 응답도 32%에 달했다. 또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와 관련, 응답자들은 신도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장 큰 원인으로 사찰의 적극성 부족(46%)을 들었다. 또 소임자와 신도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데도 22.3%가 공감했으며 제도적 미비도 지적했다(20%).

사찰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45%의 응답자가 교구본사별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반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2%에 그쳤다. 재정운영이 비효율적이란 견해도 40%에 가까운 사찰 재정관리에 대한 종단적 개선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opia.com)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월의 문화인물 혜초 스님을 기리는 국악 교성곡 ‘혜초 음악회’가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여러 후원단체, 신도, 음악 애호가들의 성원과 공연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보시행에 힘입어 성황리에 회향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초연을 마친 ‘혜초음악회’는 지극한 관심과 급급 줄 모르는 모험심을 가진 혜초 스님의 구법정신을 유려한 언어로 묘사한 배어난 가사에 흥겹고 구성진 국악의 선율을 기본으로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 통해 불교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시금석이 될 수준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교계는 물론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국악 교성곡 ‘혜초’ 공연에 보내주신 각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불교음악과 문화발전을 위해 정진해온 종단은 배전의 노력과 서원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리가 협소 해 불편하게 관람했거나 미처 입장을 못하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총리원장 성 초 합장



대한불교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국제불교연구소/ 밀교신문/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